



## 이번주 은혜의 말씀

본문: 창세기 36장 1-8절

날짜: 4월 12일, 2026년

설교자: 정동석 목사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쌍둥이인 형에서와 동생 야곱을 두었는데, 야곱은 하늘에 속한 민족이고 에서는 땅에 속한 민족의 대표입니다. 본문 창세기 36장은 땅에 속한 사람의 대표, 에서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육신의 팔족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인물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직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는 사람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많은 이들이 2,000년 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셨던 '역사 속의 예수'와만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성경 지식을 공부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고 어떤 선한 일을 하셨는지 아는 것은 몇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주님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글자 속에 숨어 있는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접촉되어야 합니다. 밤낮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접촉되지 않으면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는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지금은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오늘 살아 계신 예수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살아 있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몸을 담고 있어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소리를 듣고, 그 기쁨과 평강에 사로잡혀 사는 '하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조상의 하나님은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며, 이 세 가지 은혜가 합쳐져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며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떠남'에서 시작됩니다.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고, 자기 자식과 아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 장막에 살았지만, 죽은 아내를 위해 거액을 들여 묘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썩어질 육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올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삭은 인간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삭의 일생은 전적인 '순종'과 '누림'이었습니다. 그는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이 되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또한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뺏으면 그냥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

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예비하신 것을 누리며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복입니다.

야곱은 자기밖에 모르고 사기 치며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는 끝까지 그를 따라다니며 가르치시고 마침내 압복강가에서 그의 환도뼈를 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영은 구원받았어도 혼(자아)이 살아있으면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몸의 행실을 다스리게 됩니다.

예배당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교와 같은 일반 종교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진리를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과 누림, 야곱의 변화가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의 혼이 구원 얻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해당 설교는 오른쪽의 QR코드를 스캔하여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Sermon of the Week:



More Than Knowledge: A Living Relationship with God

**Passage:** Genesis 36: 1-8 (ESV)

**Date:** April 12, 2026

**Pastor:** Dong Suk Chung

Abraham's son Isaac had twin sons, the elder was Esau and the younger was Jacob; Jacob represents the people who belong to heaven, while Esau represents the people who belong to the earth. Genesis 36 records the genealogy of Esau, who did not value the importance of his birthright and sold it for a single bowl of lentil stew to satisfy his flesh. His descendants are those who have no interest in the invisible spiritual world and only acknowledge the present reality—the world that is visible to the eye.

Even within the church today, two kinds of people exist. Many seek to form a relationship only with the "historical Jesus" who came in the flesh 2,000 years ago, preached the gospel in the land of Judea, and healed the sick. It takes only a few months of studying biblical knowledge to learn about where Jesus was born and what good deeds He did. However, the Word of God is not mere knowledge. The Lord said, "The words that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life."

We must truly encounter the spirit and life hidden within the words. Even if we talk all day about the cross, if the life within it does not touch us, it remains nothing more than conceptual knowledge. Jesus came 2,000 years ago in the flesh to solve the problem of our sin and death on the cross, and now He dwells within us as the Spirit. What matters is having a "living relationship" — how the living Jesus guides me today and how He helps me in difficult

circumstances. Though Christians dwell in earthly bodies, they are primarily citizens of heaven—attuned to a divine voice and fueled by a joy and peace that transcends this world.

When God revealed Himself, He said,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The God of these three patriarchs reflects the distinct work of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it is through the union of these three expressions of grace that a believer's life is made whole.

Abraham means "father of many", and he represents God the Father who chooses, calls, and provides for us. Abraham's faith begins with "departure"—leaving his homeland, his relatives, and his father's house, and laying down even his own child and wife in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He lived in tents all his life, yet spent a great sum to prepare a burial place for his deceased wife. This was not for the sake of the perishable flesh, but because he believed in the "resurrection" to come. We, too, must cast everything of the flesh onto the cross and hold onto our true identity as those born of God

Isaac was not born of human desire but was the son born through God's promise when Abraham was 100 years old. This symbolizes Jesus Christ, the Word who became flesh. Isaac's life was defined by two words: "obedience" and "enjoyment". He obeyed his father to the point of becoming a burnt offering on Mount Moriah. Furthermore, he refused to fight. When the Philistines took his wells, he simply yielded and went elsewhere to dig again. This is the meekness of Jesus. A life that enjoys what the Father has prepared rather than what one has earned through one's own efforts—this is the blessing Christians are

meant to enjoy.

Jacob was a man who cared only for himself and went about deceiving others, but the Holy Spirit followed him to the end to teach him; finally striking his hip socket by the ford of Jabbok and transforming him into "Israel". He represents the story of how God the Holy Spirit is the one who transforms us. Even if the spirit is saved, if the soul (the "self") remains alive, it cannot receive the Lord's governance. Just as the apostle Paul confessed, "I die daily", it is only when my "self" dies, the Holy Spirit dwelling within me comes to govern the deeds of my body.

Merely attending a church is not faith in itself.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that demands humans to do something good or bring offerings to God. That is the nature of other religions like Buddhism. True Christianity is "receiving by faith" what God has already accomplished in Jesus, not what we offer to God. We must accept this truth—not as knowledge but as life—that "I have been redeemed by the blood of Jesus," "I have been set free from sin through the death of Jesus," and "I have become a new creation in Christ". The faith of Abraham, the obedience and enjoyment of Isaac, and the transformation of Jacob must become ours as well.

For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We must let this truth take full hold of us today. Even now, God the Father, Son, and Holy Spirit are alive and dwelling within us. This is the era in which our souls are being saved. May we be filled with the faith of Abraham, Isaac, and Jacob.

### 나성교회 연락처

- +1 562-690-7979
- <https://nasungchurch.net>
- [information@nasungchurch.net](mailto:information@nasungchurch.net)
- 1620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 도서관 운영 시간  
주말 오전 9:30 - 오후 1:30

### 나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대예배실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영어부 예배 (RHBC)	오전 11시10분	EM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 유년부 (Seeds)	오전 11시	Seeds Room
중, 고등부 (Abide)	오전 11시 10분	EM 예배실

### 삼성교회 연락처

- +82 02-2293-4421
- <http://samsungch.or.kr>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400 (우) 04701
- 지하철
  - 2호선 상왕십리역(1번 출구)
  - 2호선 신당역(2번 출구)
- 버스
  - 147, 202, 241, 302, 463, N62, N73, 1017, 2012, 2013, 2014, 2015, 6211, 성동01

### 삼성교회 예배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대예배실 (지하 1,2층)
주일예배 2부	오전 11시	대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예배실
유치부	오전 11시	4층 예배실
유년 주일학교	오전 11시	2층 예배실
청소년부	오전 10시 30분	3층 예배실
청년부	오후 2시 30분	3층 예배실